

動物의 物理的 保定

金 成 元*

1. 서 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와 동물을 취급하는 양축가, 야생동물학자, 동물원직원 등은 동물보정이나 이동시 뜻밖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 동물의 보정이 獸醫師나 畜主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임을 순간적으로 망각하여 동물은 물론 취급자 자신의 손상을 초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도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한 사람으로 짧은 시간만을 보내 왔으면서도 동물을 보정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여왔고 그때마다 참고 문헌을 찾아 보기도 하였으며, 또 오랜 경험이 풍부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세세한 지침을 받았으나 동물의 개체나 특유의 성질, 환경의 특수여건 등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애로가 있음을 시인 하는 바이다.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臨床獸醫師들도 出張 및 來院하는 동물의 보정시 畜主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취급해야 하는 동물의 특성, 성질, 습관 등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축의 飼養이나 保定取扱의 기술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실증되며, 또한 기록 되어왔다. 최근 참고 서적으로서는 1954년 Leahy, J. R와 Barrow, P.에 의해서 간행된 것

이 있으며, 이 우수한 刊行物에서 볼 수 있는 일 반원칙은 지금도 아주 가치있는 것이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飼養, 取扱法의 기술은 아직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비인도적인 고문과 같은 방법이 쓰여지고 있어서 신문이나 news media를 통해 문제시 되어 왔었다.

그러나 근래에 야생동물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된 방법이 적용되고 문헌으로는 Murray E. Fowler의 "Restraint and Handling of wild and Domestic animals"이 있다.

필자는 이 문헌과 짧은 경험을 토대로 가축과 야생동물의 兩則에 적용되는 것을 기록하여 전달 하고자 한다.

保定(restraint)이란 웹스터(Webster)의 말에 의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압박으로서 혹은 동물을 제어시킴으로 동물의 활동이나 이동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울타리를 만들어 동물을 감금하는 일로 부터 근육활동의 완전한 제한 또는 不動化(運動低下)에 이르기 까지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 제어와 화학적 제어의 兩者가 실제로 쓰여지고 있다. 고대에서는 물리적 제어만이 쓰여져 왔지만 인류가 독침을 이용하여 동물의 不動化를 언제부터 실시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동물의 제어는 식량, 옷으로 活動力으로서 혹은 sports나 愛沉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

* 서울 大公園 獸醫師

축화하는 역사와 함께 발달했다. 인류는 동물을 울타리에 가두어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상처의 治療나 投藥시 동물이 저항하는 경우에는 보다 확고히 保定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경험을 교환함과 함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만족 할 만한 保定과 제어법이 만들어 지게 이르렀다.

동물의 활동을 제한하든지 혹은 제어 하려고 하는 자의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

동물 개개의 保定 제어의 행위는 어느것이든 동물의 행동이나 생명, 그리고 기타 생활, 활동에 무엇인가의 影響을 가져온다. 따라서 인도적, 도덕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어행위는 目的完遂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멈추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의 행위가 동물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인간에 최대한의 범주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물을 保定 제어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 다음의 사항을 항상 考慮해야 할 것이다.

- ① 왜 그 동물을 保定 제어하지 않으면 안되나?
- ② 어떤 방법을 쓰면 최소의 危險性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것인가?
- ③ 實施하는데 최적한 시기는 언제인가?
- ④ 동물에 대한 stress가 최소이며 또한 최단시간으로 작업을 完遂하는 데는 누가 행하는 것이 제일좋은가?
- ⑤ 계획한 방법을 행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느 곳인가?

동물을 보정제어 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다음 4 가지 기본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① 동물을 취급할 사람에 대하여 안전한가?
- ② 동물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안전한가?
- ③ 의도한 처치를 그 방법으로 완수 할 수 있는가?
- ④ 종료후 물리적 혹은 화학적 영향으로 부터 충분히 회복하기 까지 동물을 계속 관찰하고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 4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물을 잘 다루려면 동물행동의 특징이나 心理構造의 양상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로 동물을 위해서라면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배

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으

하려면 保定 制御에 쓰이는 기구의 실용

을 이해하고 몸에 완전히 배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소리나 손쓰는 법, 화학적 제어법 등에도 잘 통달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특수한 장치에 대해서도 그 사용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화학적 제어는 물리적 제어의 극히 중요한 보조수단이며 특히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화학적 제어는 모든 점에서 이상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요원한 것이다. 야생동물을 자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지만 일종, 혹은 一群에 화학적 제어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다 만족 시키는 것은 아니다. 화학적 제어와 물리적 제어의 어느 쪽을 택해 사용할 것을 결정 하는 것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기술이나 이용가능한 설비시설, 제어될 동물의 심리적, 육체적 필요성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것에 관한 공식은 없어 어느쪽이 좋은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경험자에게 상의해야 할 것이다.

제어는 항상 최적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는 정할 수 없고 구급을 요할때는 즉각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환경적조건, 즉 기온이 32.2℃, 습도 70~90%에 미칠때는 회피하여야 하며, 행동상의 특징에 관한 배려, 사회적순위제에 관한 배려, 건강상태에 관한 배려, 줄친 울타리 제어에 관한 배려, 동물애호의 견지에서의 고려를 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동물을 보정하는 장비를 그룹별로 보면 ① 동물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장비, ② 동물들의 감각, 지각 기능을 감소시키는 장비, 기구, ③ 팔을 사용 하는데 추가로 힘을 줄 수 있는 장비, ④ 물리적인 장애물(울타리) 또는 취급자를 보호하거나 동물에 접근해서 세밀하게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 ⑤ 동물을 감금(유폐)시키는 장

비, ⑥ 물리적인 힘(동물을 억제시키는데 사용되는 장비), ⑦ 화학약품(동물을 진정, 고정 및 마취할 수 있는 약품류 등이다).

끝으로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동물은 물론, 자기자신을 완전히 통제 하여야 하며 누구를 막론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하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취급자가 지각 없이 초조해 하거나 신경질적이면 그로 인하여 동물들의 불안, 흥분 및 난동을 야기시켜 어려운 상황으로 불의의 사고를 초래한다. 또한 신중히 착수 했다 하더라도 보정방법을 적용할 때나 치료를 할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일들이 계획된 진행과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 항상 동물을 보정 할 때는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예기 하여야 하며 그러한 일들의 발생에 대처하여야 할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도를 할 경우 실시자는 불쾌한 감정을 노출하여 시행계획과정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보정시 화를 낸다든지 큰소리를 쳐 불쾌한 감정을 유발 할 시는 비협조적이며 판단력을 그릇칠 가능성이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제어를 할 때라도 상세히 계획을 세워서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함과 동시에 실시방법에 적합한 기구와 설비를 한 다음 시간의 장단은 극히 중대한 문제이나 작업은 신속히 수행하며 동물이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주의 깊게 관찰을 계속 하여야 한다.

2. 家畜別 保定

1) 馬의 物理的 保定

말은 큰소리나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놀람을 나타내지만 언어에 의한 명령에는 복종한다. 친밀감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데 큰소리는 좋지않다. 큰소리나 물건의 소리에 대하여는 말은 재빠른 반응을 나타내며 공포의 상태를 표시한다. 말과의 신뢰관계가 없다면 가만히 있는것이 좋다. 익숙한 취급자는 말에 끊임

없이 말을 걸면서 손으로 계속 쓰다듬어주고 접촉을 계속한다. 옆구리, 귀, 눈의 주위등 민감한 곳을 약간의 힘을 주어 쓰다듬어 준다. 당나귀나 노새는 감정이 강함으로 말보다는 인내력과 집착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말은 보통 머리업게와 고삐로 취급한다. 머리업게는 일시적으로 로프로 만들지만 영구적인 것은 목화실이나, 나이론, 皮草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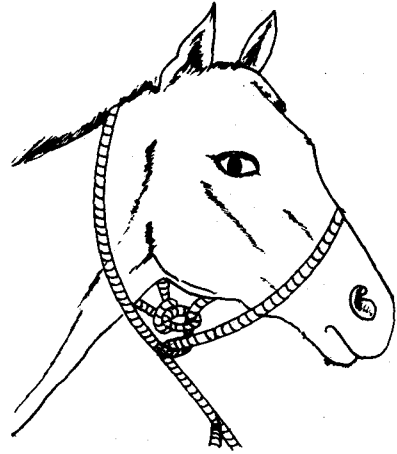


그림 1-1. 馬에 일시적인 밧줄굴레

말의 보정은 코비틀게(twitches)와 족쇄(hopple)로 부터 마구(harnesses)를 채우는 것에 이르기 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다.

가. 코비틀게(鼻捻子 : twitches)

코비틀게는 보정방법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도구를 써서 말을 제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리는 감수성이 높은 입술에 가압함으로써 四肢나 体軀에 대해서 어떤 처치를 하려고 할때 그 局所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입술에 심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다. 보통의 코비틀게는 약 60cm의 견고한 목재 자루에 짧은 사슬의 고리가 붙어있다. 기본형인것은 목제자루의 先端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하여 로프나 쇠사슬을 그림과 같이 제작한 것들이 있다(그림 1-2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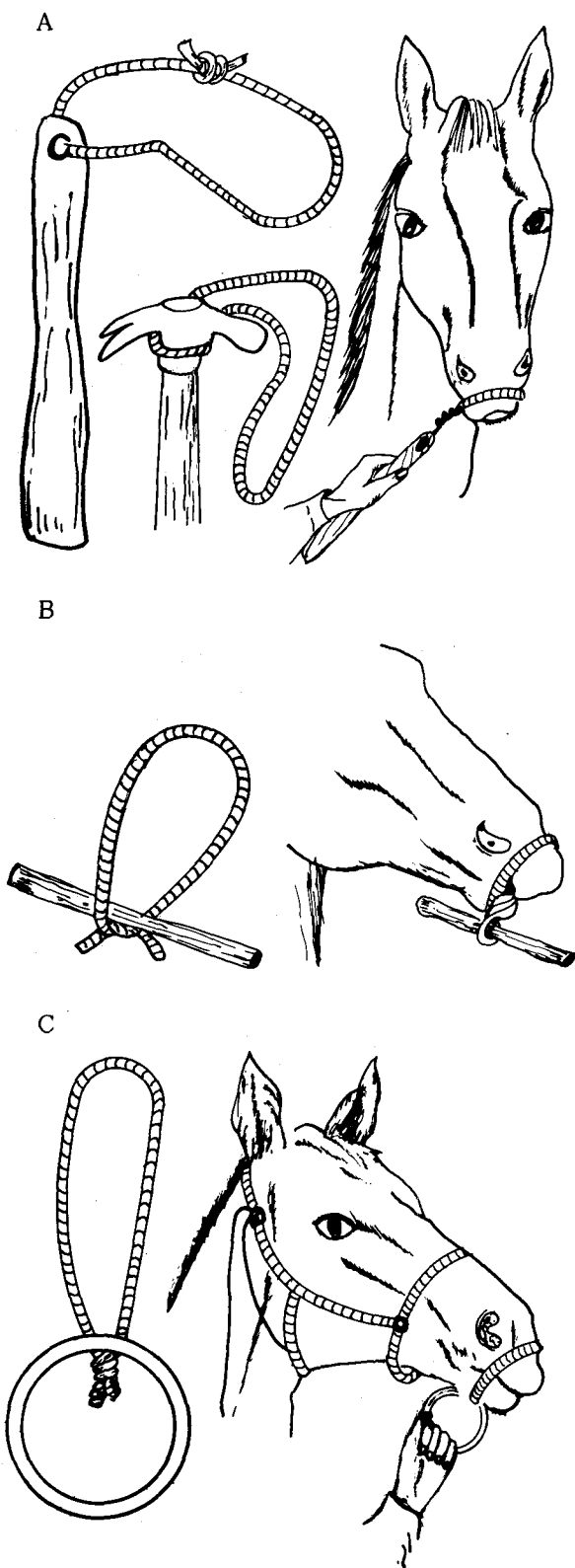


그림 1 - 2. 코비틀게 A, B, C

설치 할 경우 보통 馬는 두부를 흔들므로 코비틀게는 흔들려 돌아가서 떨어지므로 말과 시술자에게 위험하다. 철사제의 코비틀게도 빨리 빠져 떨어진다. 코비틀게를 장치하려면 石手로 코비틀게와 얼굴부분의 머리엇게(굴레)를 붙잡고, 左手의 손가락을 코비틀게의 고리에 통하게 한다. 그때 절대로 손목을 넣어서는 안된다. 左手를 코등위에 놓고 조용히 옷입술쪽으로 움직인다. 한번 입술을 잡으면 말이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일단 손가락으로 입술을 잡았으면 로프 또는 쇠사슬의 고리를 입술에 걸고 石手로 코비틀게를 조인다. 고리는 굳건히 단단히 조이는데 강하게 痛症을 느끼도록 조이면 안된다. 痛症을 느끼면 말은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抵抗을 하기 때문이다. 코비틀게를 갖고 있는자는 兩手로 꼭 쥐고 있어야 한다. 頭部를 左側으로 가게 하려면 머리엇게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코비틀게로 頭部를 움직이려면 안된다. 코비틀게는 단순히 입술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 당기거나 말의 방향을 옮기는 것은 아니다. 이때 취급자는 결코 말의 정면에 서서는 안되고 말의 肩部에 밀착해서 조작 기술 및 유지 하여야 한다.

코비틀게를 장치한 후에는 일정한 압력으로 쥐고 있으면 입술이 저려서 보정에 실패하는 수가 있다. 때문에 잡은 막대를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주기도 하고 조여 붙이는 것을 늦추기도 하고 다시 강하게 조이기도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馬이 움직이던지 코비틀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보다 강하게 조인다.

코를 잡아 당기든지 너무 강하게 조이면 입술은 영구히 장애를 입는 원인이 된다. 코비틀게를 15분이상 부착하면 장애를 초래한다. 장시간 코비틀게를 부착할 필요가 있을때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주는것이 필요하다. 코비틀게를 떼는데는 장치할 때보다 더 주의깊게 할 필요가 있다. 벗기는 순간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 같아서 돌진도 하고 후퇴도 하기도 한다. 벗길때는 머리를

들어서 코비틀게를 떨어뜨리든지 혹은 불인채 휘둘리게 하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벗겨야 한다. 장비제거 후에는 혈액순환을 회복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코끝을 마사지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기구는 강하게 저항하는 馬라도 설치하고 한쪽 혹은 양쪽귀를 붙잡으면 순해지는 수가 있다.

나. 양키재갈 (yankee war bridle : 口割)

이 방법은 주로 힘이 세거나 성질이 난폭한 馬에 대하여 행하는 최후의 보정방법이다. 직경 1~2cm 굵기의 로프 약 3m가 필요하며 한쪽 끝에 눈고리를 만들고 다른 끈을 이 눈고리로 통과시켜 약 90cm 되는 고리를 만든 다음 頭頂部로부터 顔面의 兩쪽을 통하여 上顎門齒後位の 치조에 걸치 되도록 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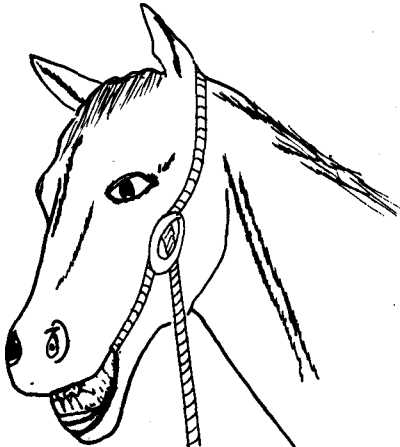


그림 1-3. 양키재갈

다. 족쇄 (Hopples)

동물의 다리 둘레에 채우는 것으로 밧줄로 짜거나, 가죽 제품으로 된 띠를 말한다.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간단하게 보정할 수 있다. 종류로는 띠족쇄, 발목족쇄, 비절 2중 족쇄, 장군 족쇄 (King hopple) 가 있다 (그림 1-4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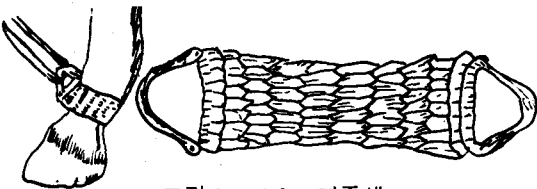


그림 1-4 A. 띠족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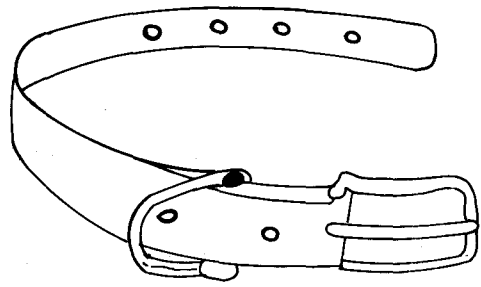


그림 1-4 B. 발목족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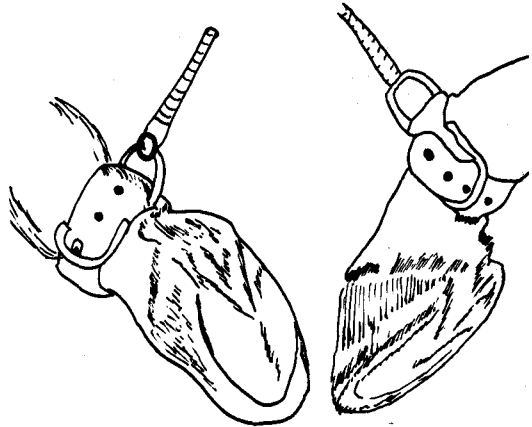


그림 1-4 C. 장군족쇄

라. 倒馬保定 (말을 넘어뜨릴때 보정)

倒馬의 용구로는 길이 30m, 직경 12~15mm의 나이론 밧줄로 2개를 함께하여 말의 胸部, 肩甲部, 그리고 기갑부를 지나는 밧줄 목걸이를 알맞게 만든다. 밧줄 끝은 기갑부에 있는 목걸이로 부터 후하방으로 내려서 뒷다리의 발목에 있는 천으로 된 족쇄의 양고리를 통하여 앞으로 와서 견갑부의 목고리를 통과하여 앞쪽에서 잡도록 한다. 말을 눕히기 위해서는 한쪽 밧줄의 끝을 앞으로 당겨서 한사람이나 두사람에 의해서 잡도록 하고 반대쪽 밧줄의 끝은 뒤로 돌려서 臀部 둘레를 두르고 말의 몸통을 장축으로 하여 앞으로 당겨서 한사람이 잡도록 한다. 말이 눕혀질 쪽으로 말의 두정부위를 통하는 굴레 밧줄을 한사람이 잡는다. 그리고 말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편이 뒷다리를 한사람이 들어 올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단단히 잡아 당긴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서 있어야 하고 모든 밧줄을 동시에 당기면

말은 땅에 넘어진다. 굴레 밧줄을 잡은 사람은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에는 자리등을 깔아주며 다리를 차지 못하도록 교차방법으로 결박하여 준다(그림 1 - 5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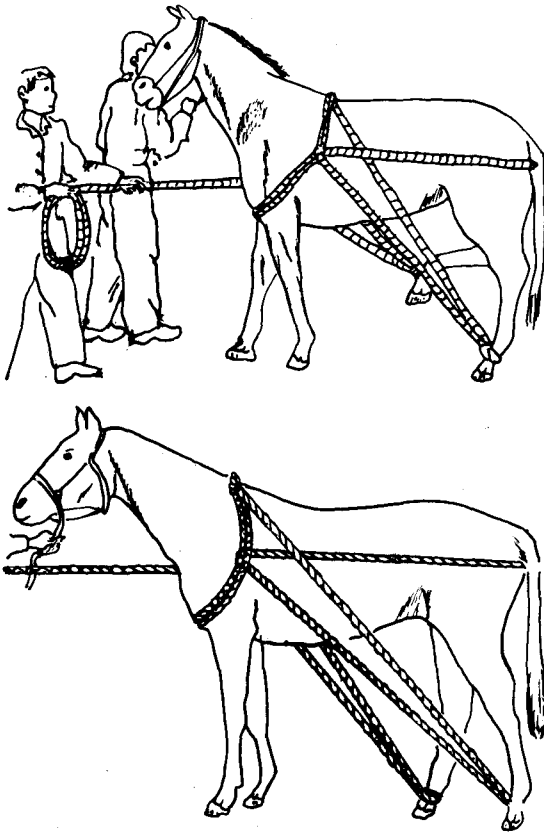


그림 1-5 A,B. 양측 밧줄 마구 걸기방법

2) 牛의 物理的 保定

牛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나 보편적으로 같이 취급 보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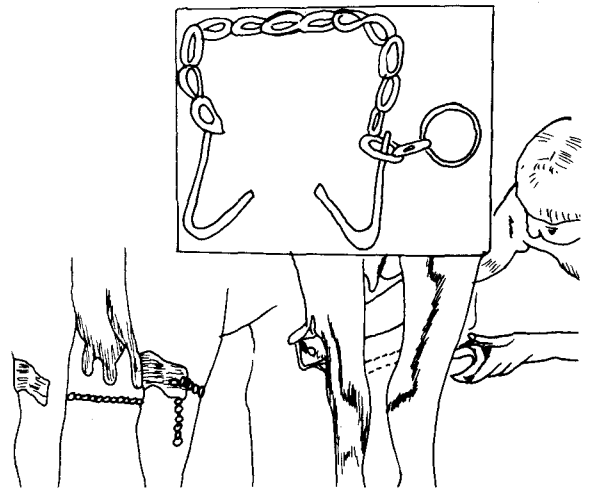
乳牛의 검사를 위하여 보다 억제적인 보정법을 응용하기 위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육우에 대해서는 밧줄로 배든지 조립이동 틀속에 넣든가, 굴레 끈을 부쳐 두든가 등의 한도내에서 적당한 것을 택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항상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예기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하여 동물을 경계하여야 한다. 안정되고 침착한 행동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틀에 가두어 두었을 때 이의는 어떠한 동물에게도 앞에서 곧 바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동물의 肩部의

좌우 어느쪽에서든 옆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굴레는 소나 다른 많은 축종에 기본적인 보정 기구이다.

조립이동 틀이나 스탠존내의 동물에 굴레를 装着時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굴레 장치후 동물에 처치를 위해서는 동물의 말뚝이나, 고리, 또는 견고한 물건에 잡아매 수가 있다. 두부를 억제함으로 채혈, 주사 등의 처치, 또는 齒牙나 여러가지 몸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소는 민감한 鼻中隔이 있어 鼻鉗子 형식으로 鼻中隔을 단단히 쥐는 것도 있다. 그러나 큰 동물은 장시간 실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 鼻中隔에 장시간 물리적 방법을 가하는 鼻鉗子를 이용하여 그 동물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다. 鼻鉗子의 장치는 언제나 용이한 것은 아니다. 경험한 것들에는 특히 용이하지 않다. 황소는 보통 코에 군드레를 달고 있어 이 군드레를 꼭 붙들어 조작하는 도구로 제어할 수 있다. 또 동물이 뒷발로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hain 족쇄, 로프족쇄가 적합하다(그림 2 - 1 A.B).

동물이 안정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넓게 다리를 떨어져 있게 한다.

처음으로 족쇄한 소에 대하여는 주의를 해야 한다. 심하게 난동하여 족쇄한 부위의 근육과 腱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Chain 족쇄는 도와줄 사람이 없이 방치해 둘 소에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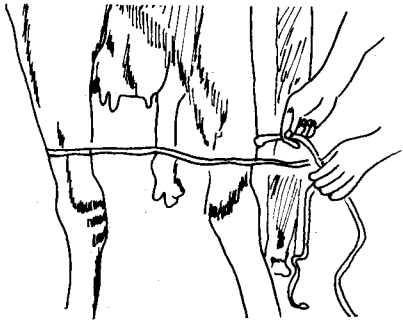


그림 2-1 A, B. Chain, 로프족쇄

로프족쇄 장치는 소에 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긴 로프를 사용하여 2인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발길질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側腹部를 짊은 로프로 돌려 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側腹部 領域 压迫은 발길질을 억제하지만 절대적인 억제는 아니다. 飛節 비틀게(그림 2-2)로 다리를 단단히 결속 시켜거나,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에 압박을 줄 때까지 밧줄을 비비 꼬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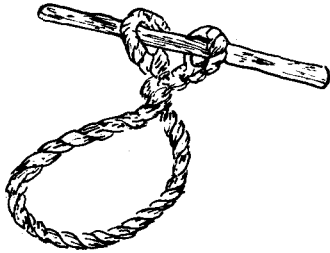


그림 2-2. 비절비틀게

다리를 치켜 올리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과, 밧줄을 이용하여 전지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림 2-3. A, B). 이 방법은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뒷다리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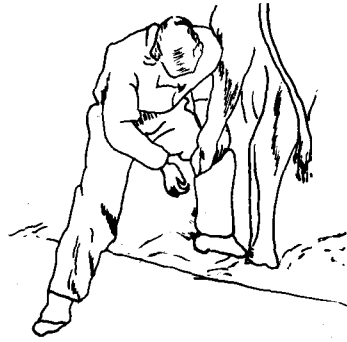


그림 2-3 A, B.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

는 것을 제지 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한쪽 끝에 고리로 된 밧줄을 이용해서 소의 발목 주위에 둥근 올라미를 형성시키고 밧줄의 나머지 한쪽끝을 소의 기갑부 위로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소가 넘어지려고 할 때는 재빨리 밧줄을 늦출 수 있도록 보조자에 의해서 밧줄이 조절되어야만 한다. 後肢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소를 검사하거나 치료, 특히 소의 발굽검사를 할 경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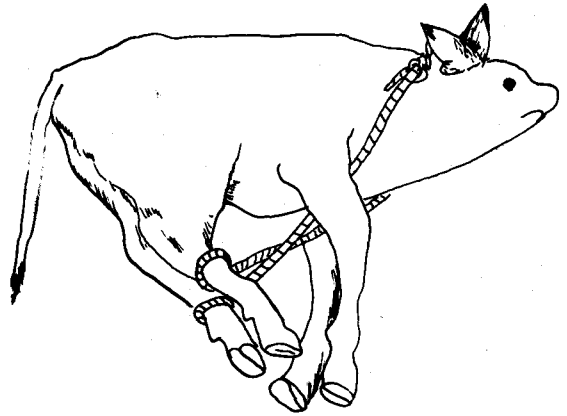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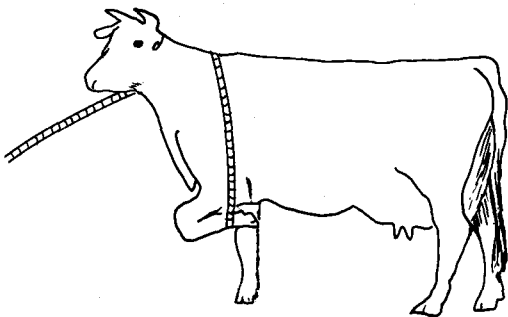


그림 2-4. 송아지 거세용 보정법

송아지 보정법

어린 송아지를 거세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시술자는 양팔을 동물의 등 넘어로 최대한 뻗어서 자기 쪽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이다. 쓰러진 송아지의 등을 무릎으로 내리 누르면서 시술자는 송아지의 양뒷다리를 밧줄 중간으로 한번 돌린 다음 밧줄 양끝을 다시 양뒷다리 사이로 통과 시킨다. 그리고 밧줄 양끝을 엇갈리게



하여 앞다리 가운데로 밧줄을 통과시킨다. 그후 한가닥의 밧줄을 송아지의 목주위로 돌린 다음 목덜미 근처에서 두 가닥의 밧줄을 묶는다 (그림 2-4 송아지의 거세용 보정법).

꼬리 밧줄 매기는 꼬리를 밧줄로 매어 보정하는 방법으로 소를 잘 제어하고 또는 스탠존내에 넣고서 소의 後尾에 서서 한쪽손을 밑에서부터 뺨쳐 꼬리를 잡아 올리고 다른 손으로 꼬리 붙은 곳을 잡는다. 그뒤 두손으로 꼬리를 잡고 등을 넘어 왼쪽 수직으로 압박한다. 꼬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脊椎尾神經을 충분히 조여 누르면 소는 힘을 빼고 다른 처치에 신경을 안쓴다. 산후 태반을 제거하고자 할 때나 유방을 치료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앞발이나 목에 로프를 장치해서 보정한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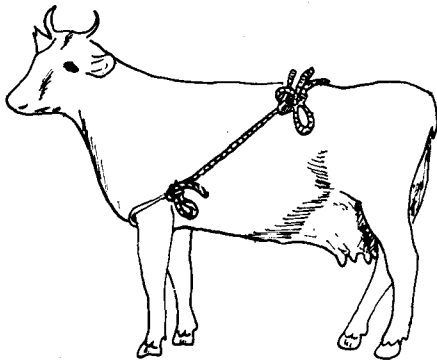


그림 2-5. 꼬리 밧줄매기

소를 눕히기 위한 보정 방법으로는 Burley박사에 의하여 고안된 버리씨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잇점이 많다. 밧줄로 소의 뺨이나 목을 묶을 필요가 없고, 쉽게 밧줄을 돌려 맬 수 있으며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적다. 또 소의 胸部에 압박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심장이나 肺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수소의 생식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소의 유방 혈관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누운 소의 뒷다리를 이 눕힘 밧줄로 묶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굴레나 코집계에 의해서 보정되어 있는 동안 약 20m 정도의 밧줄을 소

의 등에 걸친 후 밧줄의 중심부가 기갑부에 가도록한다. 그런 다음 밧줄의 양 끝부분을 앞다리 사이로 빼서 胸骨에서 교차시킨다. 다음 밧줄의 양끝이 다시 소의 몸통 측면으로 돌려져서 다시 양끝이 背部에서 교차된다.

그림과 같이 밧줄 양끝은 아래로 내려와 뒷다리 사이로 옮겨진다. 이때 밧줄은 대퇴부 안쪽과 유방 또는 음낭과의 사이를 통과한다. 이렇게 한후 밧줄의 끝부분을 잡아 당기면 소는 넘어진다. 이때 실시하는 사람은 한쪽의 밧줄에 힘을주어 넘어지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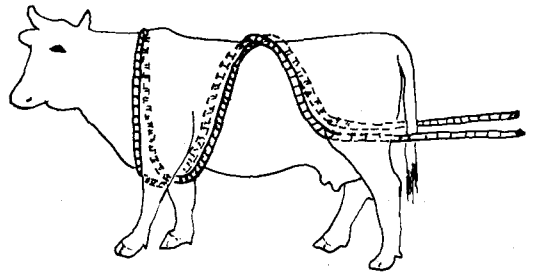


그림 2-6. 눕히기-버리씨 방법

3) 豚의 物理的 保定

넓다란 우리속에서 성돈 보정을 시도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좁은 우리나, 먹이에 의하여 보정 가능한 장소로 몰아 넣는다.

豚에 강력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정답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조용한 태도로 말을 걸어줌으로 특히 매일 사육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암돼지는 물론 수돼지까지도 종종 취급이 가능하다. 암돼지에 말을 걸어가며 체구를 살살 친질하게 문질러 주어, 체온을 쫓 수가 있으며, 간단한 처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험해 볼 일이다.

로프로 큰 돼지를 보정하려면 한쪽 끝에 귀를 만든 밧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밧줄 올라미를 돼지의 목 주위에 걸어 맨다. 돼지는 목에 올라미가 걸리자마자 예측할 수 없이 뛰며 움직일 것이다. 계속 돼지가 앞으로 가려할 때 밧줄의 끝을 꼭 잡고 돼지 앞에 밧줄의 긴 부분을 놓아

서 밧줄을 넘어가도록 한다. 이때 취급자는 반드시 돼지 뒤에 서서 조작, 관찰하여야 한다.

한쪽 끝은 胴体에 반매듭을 만들기 위하여 긴 부분을 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밧줄로 먼저 반매듭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돼지가 고리를 통과하도록 돼지의 앞에서 고리를 잡는다. 그리고 돼지가 도망가려 할 때 힘껏 당긴다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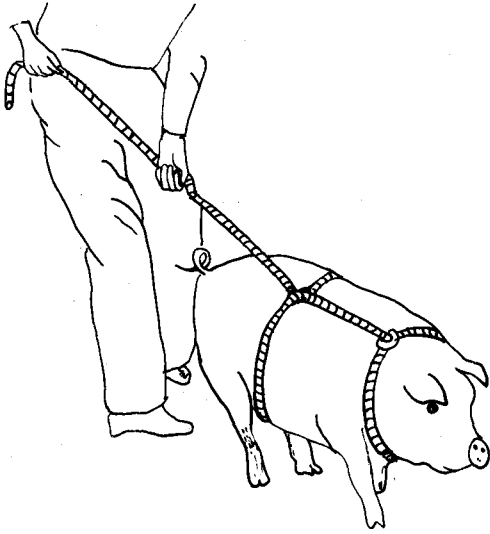


그림 3-1



그림 3-2.

체중 50kg 이하의 돼지는 두 다리를 잡으므로서 완전히 잡히고 腹部는 앞을 향하게 하고 보정자의 무릎사이에 끼워서 고정시키며 돼지의 머리는 밑으로 향한다. 예방 접종을 위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정하는 좋은 방법이다.

거세를 하고자 할 때는 돼지의 등을 앞으로 향하도록 돌려서 잡고, 돼지의 머리는 보정하는 사람의 다리 사이에 넣어 뒤로 가게 한다. 이러한 보정은 힘이 센 보조자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보정에서는 돼지가 물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그러나 돼지 머리를 취급자의 발로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다. (그림 3-2)

돼지를 눕히든지 横臥位로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다음 기술하는 방법의 한 가지를 쓸 수 있다. 모든 방법은 처음에 비보정법을 실시한 후 부터 실시하게 된다. 첫번째 방법은 후지 족쇄를 쓰는 방법 (그림 3-3) 과, 두번째 방법은 눕혀서 보정하는 법으로 큰 돼지에 적합하며, 성돈 거세에 적당한 자세이다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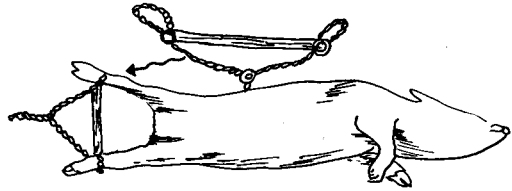


그림 3-3. 돼지 후지 족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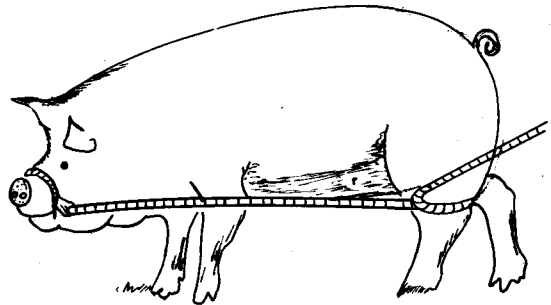


그림 3-4. 눕혀서 보정하는 방법

세번째 방법은 横臥시키는 법은 돼지를 눕히

고 싶은 쪽의 전지와 후지에 짧은 로프를 장치한다. 로프는 돼지 몸의 하부를 통해서 등을 넘겨 반대쪽으로 낸다. 취급자는 돼지 옆에 서서 돼지 체구의 위로 교차하여 넘겨서 로프를 당긴다. 이렇게 하면 다리는 몸통 밑으로 부터 끌려나와 돼지는 옆으로 눕는다 (그림 3-5) 장시간 수술을 위해서는 다리를 완전히 뺏쳐서 보정하고 다리로 사람을 차서 상처를 입히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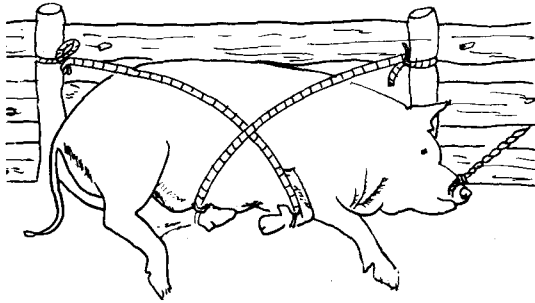


그림 3-5. 눕혀서 보정하는 법

4) 犬의 物理的 保定

犬의 목걸이 줄은 중요한 보정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犬을 산보시킬때 주인이 끄는 끈이나 쇠사슬은 보정구로서 완전 적합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제어목적에 적합한 완전한 목걸이는 초크체인(choke chain)이다. (그림 4-1) 이것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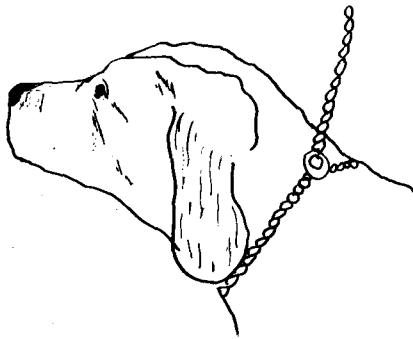


그림 4-1. 초-크체인

용으로는 직경 3mm의 나일론 로프가 목걸이나 잡아 당기는 끈으로 쓸모있다. 이 끈은 犬을 제어할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의 사태에 쓰여진다.

강아지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다. 강아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한쪽 손을 腹部와 胸部 밑으로 넣으면 된다 (그림 4-2). 대부분의 강아지는 저항하지 않고 순하게 하고 있다. 만일 도망 가려고 몸부림치면 또 한쪽 손으로 강아지 등에 부착하여 기분 좋게 하여 줄 수 있다.



그림 4-2. 들어 올려 보정

끌어안아 올리기 위해 犬에 접근 할 때는 시종 犬에게 말을 걸도록 한다. 정면으로 가까이 가는 것 보다 옆으로 부터 가는 것이 좋다. 흥분해 있던지 신경질적인 개에게는 별도방법을 취해야 한다. 犬에게 최초로 접근할 때 손을 내밀어서는 안된다. 개에 가깝게 가서는 키를 낮추어 몸을 구부려서 보는 것이 좋다. 가끔씩 최초로 접근하는 犬은 일시적 입마개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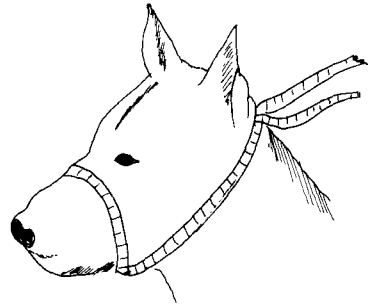


그림 4-3. 일시적 입마개

중형 내지 대형의 犬을 안어 올리려면 개 바로 옆에 앉아 한쪽 팔을 앞발의 가슴 주위에 넣

고 또한 팔을 복부를 감싸쥐어 犬의 몸을 자기 몸에 밀착시켜 일어나면 좋다 (그림 4-4). 만일 개가 발버둥치면 개를 자기몸에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 같이 안든지 또는 테이블 위에 앉혀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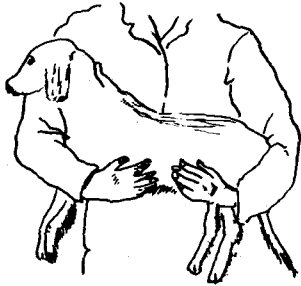


그림 4-4. 중형 개 이동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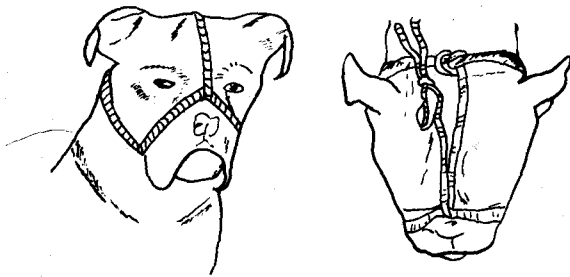


그림 4-5. 短頭蓋型 입마개

短頭蓋型 犬의 일시적 입마개법(그림 4-5)은 장형두개골의 犬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마개를 완전히 조인 다음 단두개형의 개에 있어서는 코 위에 있는 코올가미를 코의 등면에서 경배부에서 묶고 난 끈을 그림과 같이 頂稜 부근에서 휘



그림 4-6. 정맥주사시 보정

감치기 법으로 묶는다. 기타 머리를 보정하여 간단한 예방주사를 놓을때 쓰이나 거의 주인이 보정하게 된다.

정맥내 주사시 보정방법(그림 4-6)은 보조자가 그림과 같이 한 손으로는 개의 머리를 목 부분에서 감싸쥐고 또 다른 손으로 개의 전완부를 단단히 잡아서 정맥혈관이 부풀어 오르도록 정맥에 압력을 가해 줘야 한다.

参 考 文 献

1. Murray E. Fowler : Restraint and Handling of Wild and domestic animals.
2. Murray E. Fowler : Zoo and Wild medicine. (1978)
3. 地昂 : 動物의 保定と 取扱ム. (監訳)
4. Young, E. (ed) : The Capture and Care of Wild animals. (1973)
5. 鄭英彩 : 動物 保定法.